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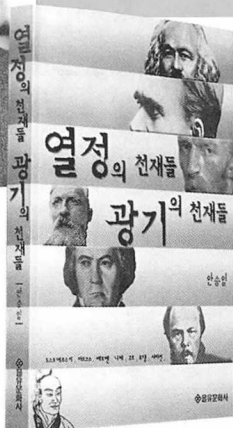
좌절과 고독 거름삼아 꽃핀 창조적 열정의 세계

《열정의 천재들 광기의 천재들》 펴낸 안승일씨



안승일씨

을유문화사/A5신/354면/9000원



대부분의 천재들은 불행하게 살다갔다. 그들의 삶은 항성의 궤도에 뛰어난 혜성을 떠올리게 한다. 규칙적이고 명확한 질서의 세계에 혜성의 변덕스러운 진로는 매우 기이하게 비칠 것이다. 하지만 그 불행이야말로 위대한 창조의 초석이였다. 개인적인 좌절과 고독이 없었다면 그들의 재능이 그토록 눈부신 열정으로 이어지진 못했을 것이다.

인간적 약점도 밝혀내

자유기고가인 안승일씨(57)가 펴낸 《열정의 천재들 광기의 천재들》(을유문화사)은 위대한 천재 7인에 대한 평전이다.

“대부분의 평전은 한 인물에 대한 찬사일변도에 그칩니다. 저는 천재들의 순수한 창조적 열정뿐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약점과 그것을 이겨내고자 한 인간힘을 함께 말했습니다. 또 천재들의 정신적 반역자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천재는 결코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책에 소개된 천재는 도스토예프스키, 마르크스, 니체, 베토벤, 로댕, 고흐, 사마천 등 일곱명이다. 안씨의 말대로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들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천재는 천부적인 재능의 소유자이자 동시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력의 경주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운명적 고난을 피로워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다. 하지만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 뒤엔 그들의 지친 영혼을 한없이 따뜻하게 위로해준 이들이 있었다. 천재들의 삶은 고투와 사랑과 위로가 벌이는 향연이다.

도벽을 가라앉혔던 아내 안나,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니체의 평생에 걸친 영혼의 동반자로 남은 루 살로메, 고흐의 동생 테오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천재들이 겪었던 육체적, 영적 고통에서 발견한 한줄기 빛이었다.

니체는 평생 조울증을 앓았다. 병적인 흥분상태와 우울증이 교대로 반복되는 와중에 잠깐씩 평화로운 순간이 찾아왔

다. 니체의 말기 저작들은 모두 심적인 흥분상태에서 씌어진 것들이다. 천재들의 기지와 영감이 종종 광기로 오해받는 것도 이런 병리학적 상황 때문이었다. 안씨는 “광기와 영감을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한다. 상상력의 원천이 광기든 영감이든 천재는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베토벤은 29세 때 심각한 청각장애를 겪어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고흐의 유희는 그의 생존 당시 단 한점 밖에 팔리지 않았다. 가격도 단돈 400프랑이었다. 사마천의 경우는 끔찍하다. 그는 흉노에 항복한 동료들을 옹호한 죄로 궁형(宮刑)을 당하고 상처부위가 썩지 않도록 잠실(蠶室)이란 뜨겁고 어두컴컴한 독방에 갇힌다. 그는 이곳에서 20년 동안 새로운 역사 서술방법인 기전체를 창안하고 《사기》를 완성한다.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 천재 만든다”

“이 책에 소개된 천재들은 자신이 선택한 외길

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가졌습다. 그것은 재능만으론 안됩니다. 죽을 때까지 처음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천부적인 순수함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사실 대부분의 천재들이 위협적인 신체적 질병, 세인의 몰이해와 기피를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안씨가 말하는 또 다른 천재의 조건은 ‘누더기’를 ‘비단’으로 바꾸는 자유로운 상상력이다. 로댕은 르네상스 이후 회화의 그늘에 가려 하나의 장식물로 전락한 조각을 되살려냈다. 조각의 대상을 성인이나 위인에서 고뇌하는 다양한 인간군상으로 바꿔, 조각예술의 새지평을 열었던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는 편년체 방식이 절대적이었던 당시의 역사학에 ‘열전’이라는 혁명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그는 여기서 다양한 인물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박진감 넘치게 그려냈다. ‘개인’들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새로운 인식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인간은 위대하지 않고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자유롭지 않고는 결코 위대해질 수 없죠. 천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란 장막을 뚫고 미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은 자유로운 영혼에 상상력을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 강성민 기자